

광주 젊은층·전남은 타 지역 주민 접촉 감염 주원인

광주, 유흥업소·주점 등 추가 발생... 지난달 절반 20~30대 전남, 타지역 거주자 가족 방문했다 확진 사례 늘어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20~30대 젊은층이 주점과 체육시설 등에서 감염돼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여름휴가철 타지역 거주자와의 접촉·방문 과정에서 감염이 이어졌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15명(누적 3428명)이 추가됐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서구 소재 유흥업소·광산구 체육시설·광산구 주점 관련 5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 3명, 유증상 검사자 2명, 해외유입 1명이다.

지난달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절반은 20~30대 인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서는 7월 31일 9명, 이날 오후 6시까지 5명(누적 20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3일과 24일 확진자가 없었으나 이후 25일 23명을 시작으로, 26일 15명, 27일 20명, 28일 6명, 29일 32명, 30일 13명 등 확진자가 늘뒀기 계속하고 있다. 서울·대전·충남 천안 등 타지역 거주자들이 전남의 가족을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전남도가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일가족 3명(광주3400번·3401번·3406번)은 지난달 30일 확진된 3392번의 가족으로, 지난 24일

부터 27일까지 경주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광산구 체육시설과 주점에서도 각각 각각 1명과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12명, 22명으로 늘었다.

나머지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광주를 방문한 서울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경우들이다. 타지역에서 지난 30일 입국한 지역민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1일 화순 3명, 목포 2명, 보성·순천·신안·완도에서 1명씩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화순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답양 펜션을 다녀온 뒤 확진된 2007번과 접촉한 40~50대 3명(2042~2044번)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일 오후 2시까지 보성 1명(해외입국), 나주 1명(해외입국), 여수 2명(대전 3435번 접촉), 목포 1명(전남 2009번 접촉) 등 4명이 확진됐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광주에서는 모두 4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령대별로 10대 미만 16명, 10대 54명, 20대 144명, 30대 79명, 40대 68명, 50대 52명, 60대 이상 32명이었다. 20~30대를 합치면 223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젊은층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데다가 호프집, 주점,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활동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했다. 또 가족 간 감염도 가정에서 확인되면서 가정에서 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에 타 지역 방문과 만남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확진자 두자릿수에 강경 대응

역학조사 비협조엔 고발 검토 외국인 고용사업장 검사 의무화

광주시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확진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선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지난 7월 31일 발동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꾸준히 두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 3395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점심 먹기 위해 일행 6명과 서구 한 중식당을 찾았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시기였지만 A씨를 포함한 7명은 한꺼번에 이 식당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분리된 공간에서 3명, 4명씩 나눠 앉았지만, 식사비 계산은 모두 A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광산구 소재 주점방 연쇄 감염으로 접

사 대상이 된 A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진단검사서에서 일행 1명(광주 3389번)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이들의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식당에 간 일행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리시설로 이송된 후엔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미등록외국인 진단검사 시 체류 사실 통보 면제,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 강화 등 외국인 관련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김대중평화회의' 10월 27~28일 연다

국내외 석학 한반도 평화·생명·환경 주제 발표

전남도가 오는 10월 27~28일 열리는 '2021 김대중평화회의'가 국민과 함께 하는 평화의 축제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백학순 2021 김대중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5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조직위원회에서 확

정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실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 김대중평화회의"에는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학 교수, 박명규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팬데믹과 생명·환경' 주제 등을 통해 온·오프

라인으로 색선에 참여한다.

또 '평화의 미소'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문화행사에는 일상의 다양한 미소를 주제로 한 작품과 세계인의 미소 사진을 수집해 미소 캠페인을 펼친다.

순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80여 일 남은 기간 세부 실행방안을 꼼꼼히 챙겨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이 중심이 돼 평화, 민주, 인권 이야기를 세계와 논의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학의 사건'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반부패비서관 이원구 선임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에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발탁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기헌이 밝히고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철 비서관의 교체는 사의 표명이 있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1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퇴직하도록 했다.

이 비서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이기헌 비서관은

경희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과거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조직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했다. 이원구 비서관은 한양대 세라믹공학과를 나왔으며, 사법시험(44회)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본사인사
▲ 한수영 : 서부취재본부 함평주재 기자 (8월 2일자)

입야, 단독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p> <p>매매가 6억 3천(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p> <p>●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도희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07월 01일 당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1년 09월 0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2일
주식회사 신세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1, 901호 (치평동, 차스타위신관)
청산인 차준성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광고문의 (062)227-9600

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영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신문약회 ☎ 010-7794-6920